



우리나라 많이 놀러오네요

월 외국인 입국자 수 기록 경신

SK증권 미래산업/미드스몰캡 나승두
02-3773-8891 / nsdoo@sks.co.kr



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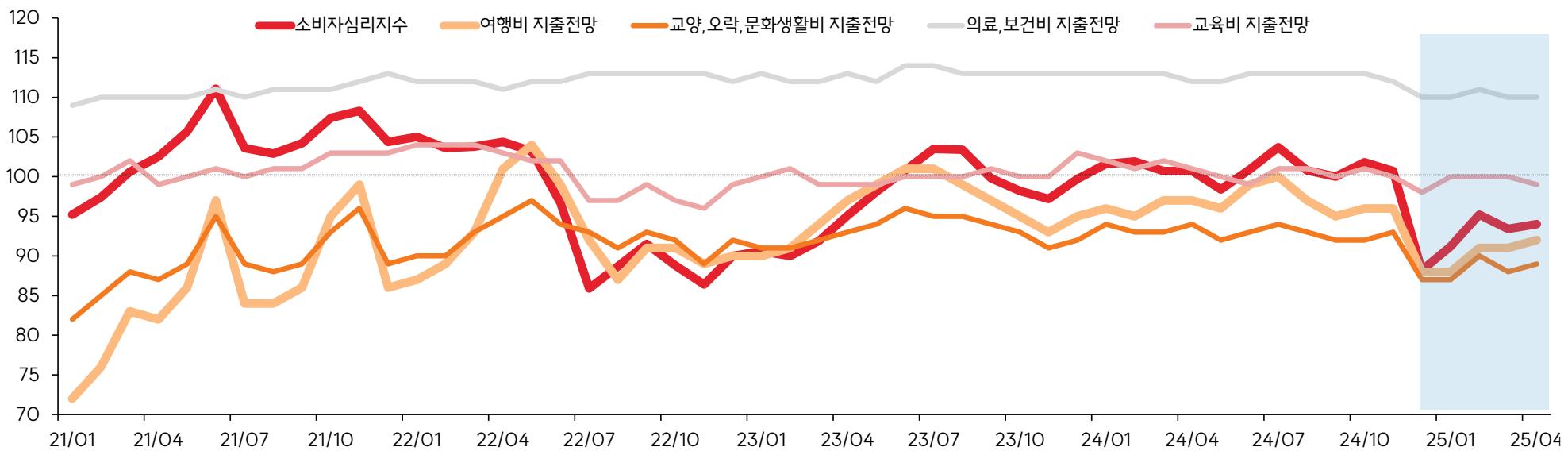
- 4월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반등 성공, 여행비 지출 및 교양/오락/문화생활비 지출 전망 반등
- 단기적 큰 고비였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었고, 오히려 정책적 경쟁을 통한 정책 기대감 기대할 수 있는 국
- 1월 이후 연휴 효과 사라지며 출국자 줄었지만,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은 기록 경신 중
- 우리나라 국민, 동남아보다 중국 및 일본 찾는 비중 증가 중
- 올해 1분기 중국향 출국자 +48.8% 증가, 같은 기간 일본은 +6.7%, 태국 및 필리핀 등은 오히려 감소
- 3월 외국인 입국자 167만명,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, 중국/일본/동남아 입국자 고른 성장
- 올해 1분기 중국 출발 우리나라 입국자 Y-o-Y +11.4% 증가, 일본은 +19.1% 증가, 동남아도 평균 +10% 이상 증가, 인바운드 여행객 호텔 실적 반등 주목
- 제주도 내국인 입도객 빠르게 반등 중이고, 외국인 입도객도 최고치 경신 임박
-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아닌, THAAD 배치로 인한 영향 있었던 2016년 수준으로 눈높이 높여야 할 시점

5월 먹.자.늘. Top pick – **하나투어, 롯데관광개발, 서부T&D, JTC**

4월 소비자심리지수 반등, 여행비/오락문화생활비 반등 성공

- 4월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,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등 반영된 것으로 해석
-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, 빠르게 반등하는 듯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반등 주춤했던 상황
- 단기적 가장 큰 고비였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적 경쟁을 통한 기대감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라 판단
- 여행비 지출전망 / 교양, 오락, 문화생활비 지출전망 CSI 지수는 반등 성공, 의료, 보건비 / 교육비 지출전망은 행보 또는 소폭 하락
- 여행 및 여가에 대한 소비심리 탄탄히 유지되고 있는 중, 5월 및 하반기 연휴 효과 기대감 유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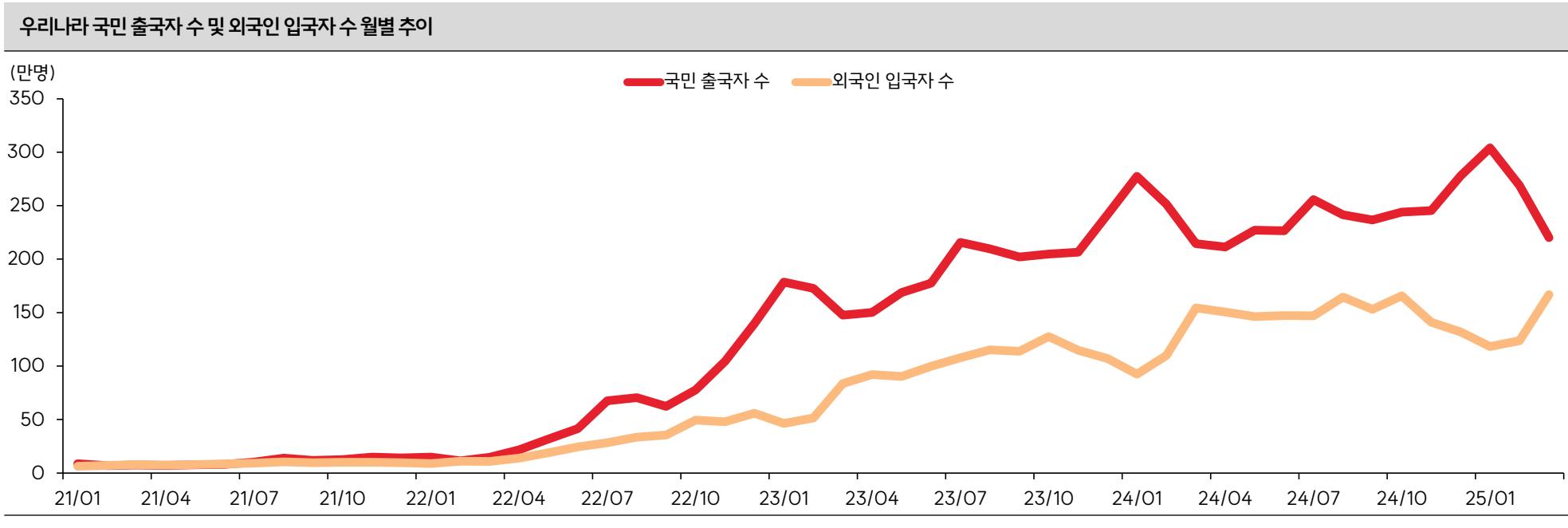
소비자동향조사 주요 항목별 월별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, SK증권

3월 국민 출국자 줄었지만, 외국인 입국자 크게 반등

- 올해 1월 연휴 효과로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월과 3월 연이어 MoM 감소
- 하지만 올해 월별 출국자 수 감소한 듯 보이지만, 전년동기 대비 평균 +6% 이상 증가 추세는 유지 중
- 4월 특별히 연휴 기간 없었다는 점 감안하면 4월도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 기록할 것으로 예상, 5월은 연휴 효과 다시 재개
-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는 줄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수는 반대로 빠르게 증가
- 3월 외국인 입국자 수 167만명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월 최고치 경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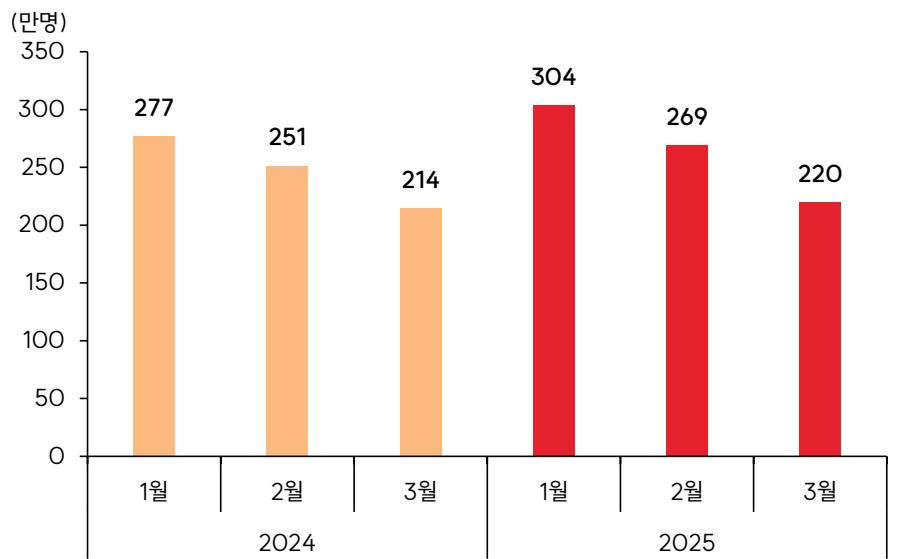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작년보다 중국/일본 여행 더 간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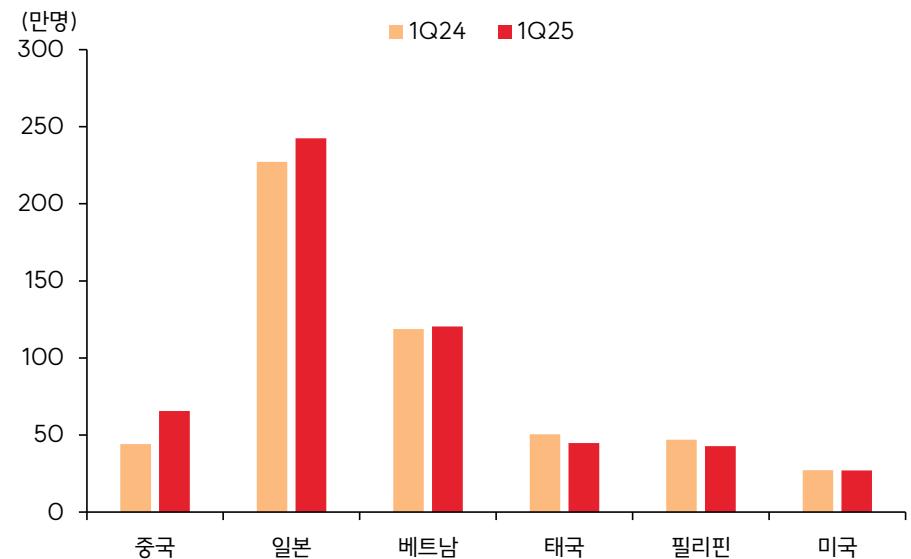
- 올해 월별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는 MoM 감소하는 모습 보였지만 YoY 평균 +6% 이상 증가세 유지 중
- 1월 임시공휴일 지정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 크게 늘었고, 2월 및 3월에는 특별한 연휴 없었음
- 3월과 4월도 마찬가지로 연휴 효과 기대하기 어렵지만, 5월 초 연휴 있었고 6월도 대선일 지정 후 연휴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중
- 동남아 향하는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비중 감소 추세지만, 중국 및 일본 향하는 출국자 수는 크게 증가
- 중국, 1Q25 출국자 +48.8% 증가, 같은 기간 일본은 +6.7% 증가, 반면 태국 및 필리핀은 각각 -11.1%, -8.9% 감소

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YoY 증감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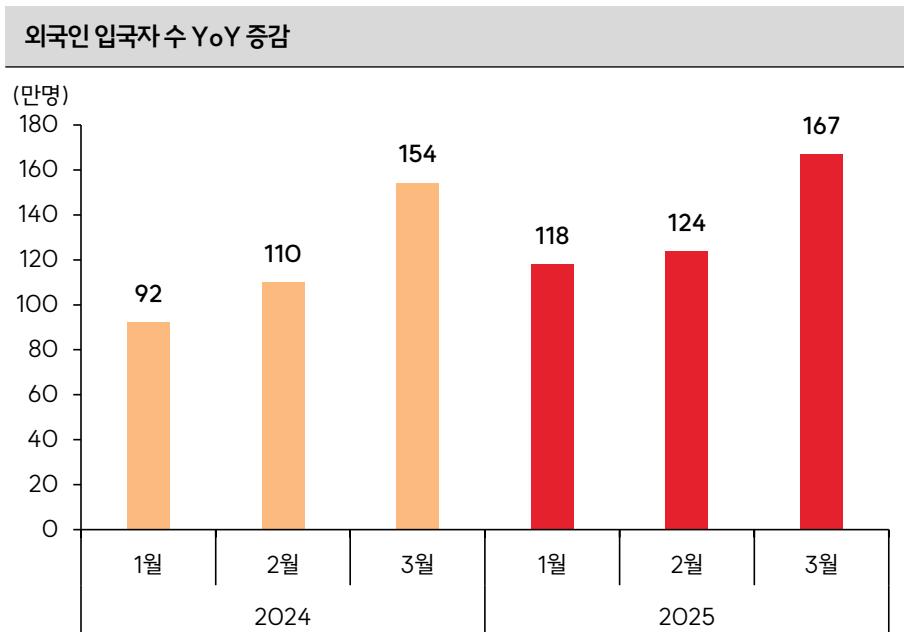
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수 YoY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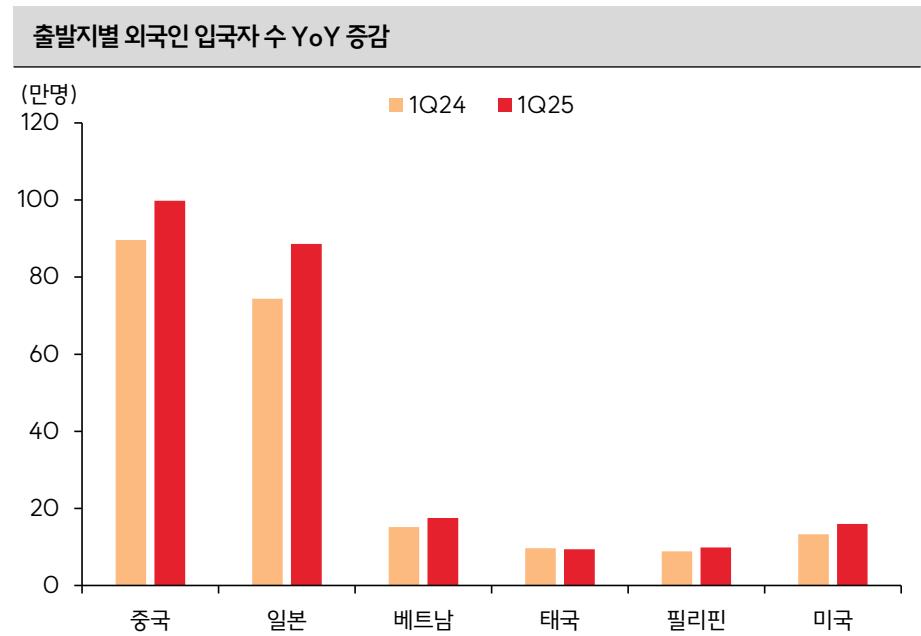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계속해서 증가

-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월 입국자 수 사상 최고치 경신
- 2024년 8월 한 달간 165만 명 입국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, 올해 3월 외국인 입국자는 167만 명 기록
- 인천국제공항 확장 및 항공 노선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중국 및 일본에서 우리나라 입국자 크게 증가, 중국 1Q25 입국자 100만 명 넘어서며 YoY +11.4% 증가, 일본 입국자 같은 기간 +19.1% 증가
- 동남아를 찾는 우리나라 출국자는 줄었어도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입국자는 평균 10% 이상 증가하는 추세 = 인바운드 여행객 호텔 등 주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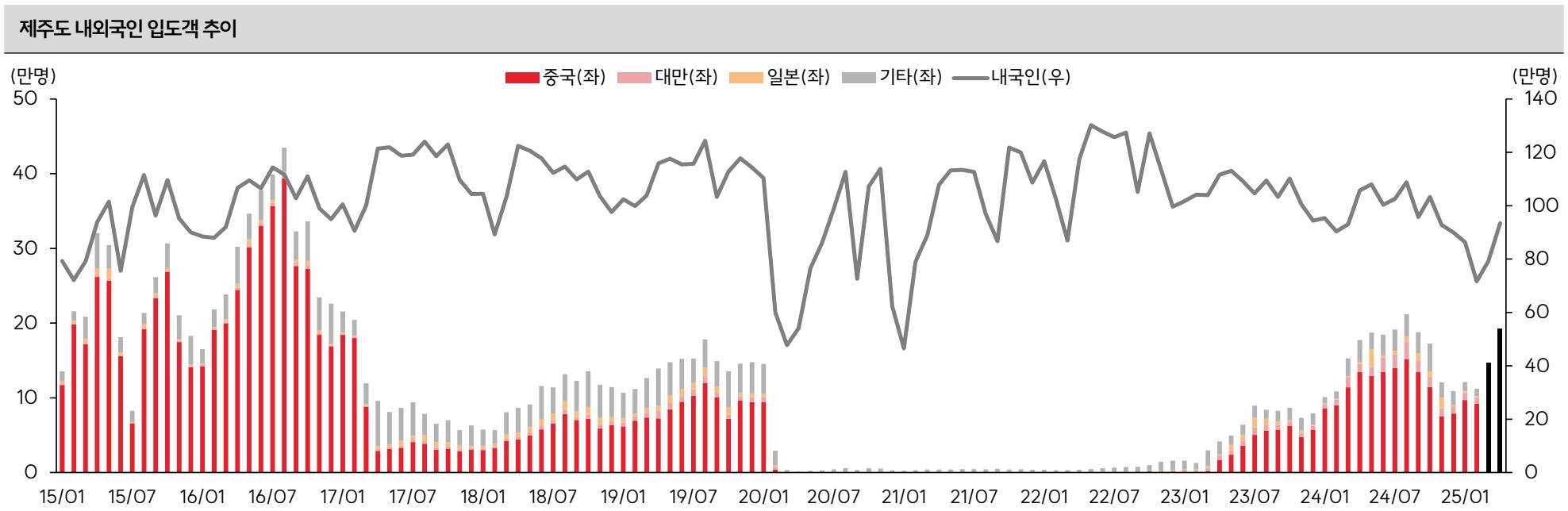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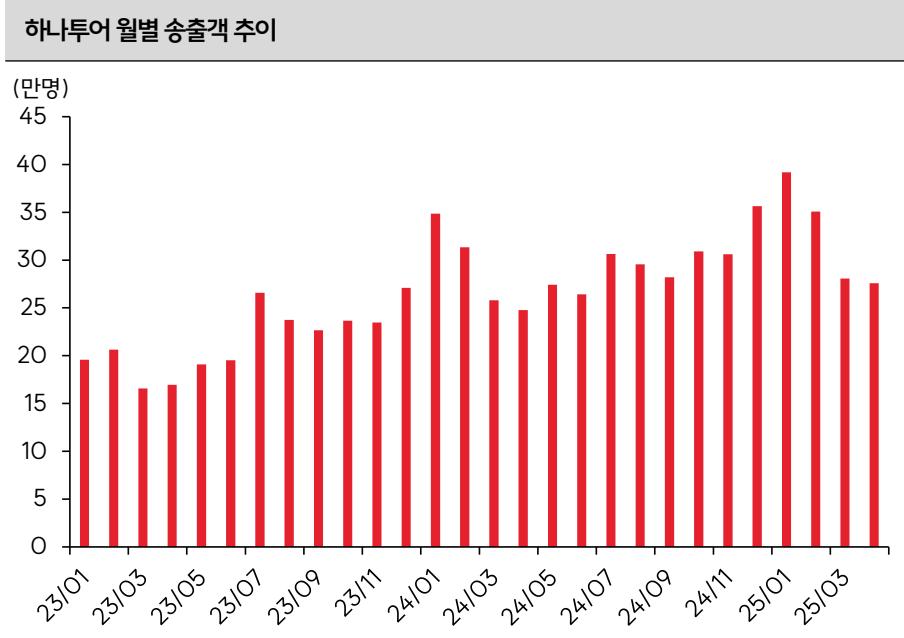
제주도 외국인 입도객,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눈앞

-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입도객도 코로나19 이후 월 최고치 경신 눈앞에 둔 상황
- 올해 4월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19.3만명, 2024년 8월 21만 2천여명에 근접한 수치
- 올해 5월 10일까지 월 누적 외국인 입도객 7만명 넘어선 것으로 파악,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+15% 증가한 수치, 월 누적 최고치 경신 가능성 높음
- 내국인 입도객 회복도 고무적, 짧은 휴일에는 해외 아닌 제주도 찾는 내국인 관광객 비중도 빠르게 증가
- 5월부터는 대형 크루즈 여행객들의 제주도 입도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, THAAD 배치 이전인 2016년 수준으로 눈높이 높여가야 할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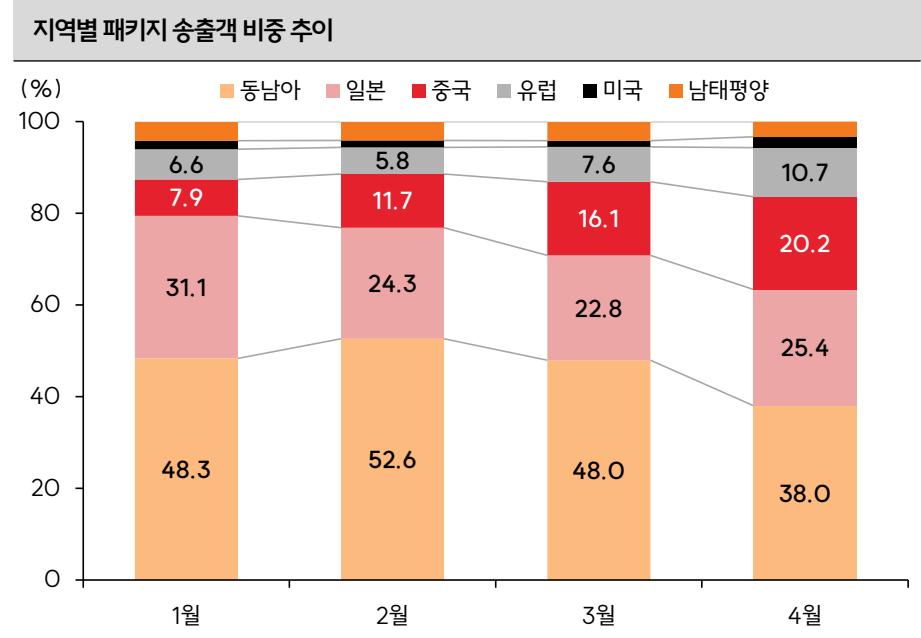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제주도관광협회, SK증권

-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수 동향과 유사한 형태의 송출객 흐름 나타남
- 월별 송출객, YoY 기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실적 기록했지만 MoM 실적은 월별 감소 추이 나타남
- 작년 연말부터 이어져온 정치적 불확실성 및 항공 사고 등의 여파로 1분기 여행업계 실적 다소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
- 특히 항공 사고의 경우 패키지 여행 상품 관련 언급이 많았고, 동남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 등 이슈 부각되며 여행 상품 구성도 달라짐
- 반면 중국 및 일본 향하는 송출객 비중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, 5월 및 6월, 하반기 연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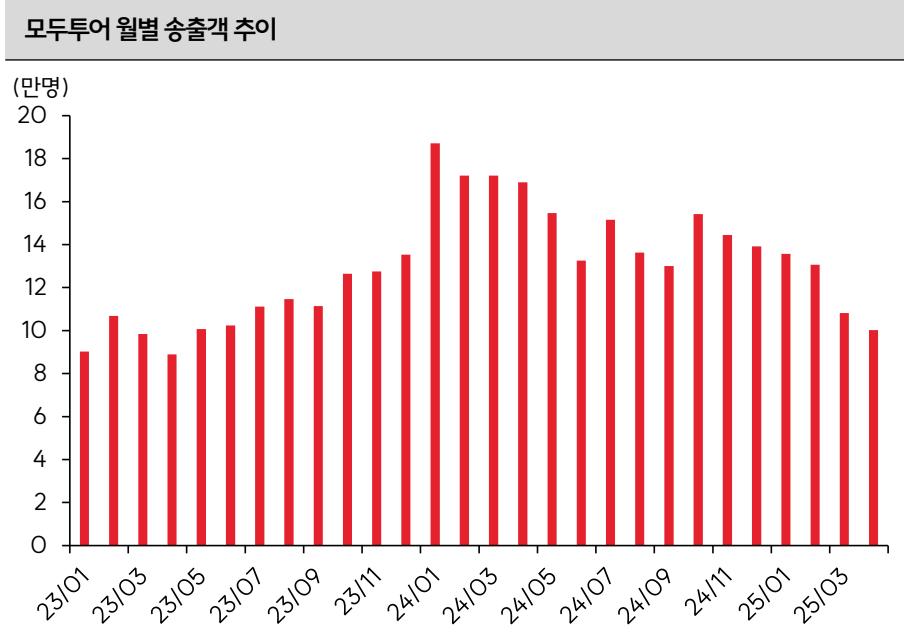
자료: 하나투어, SK증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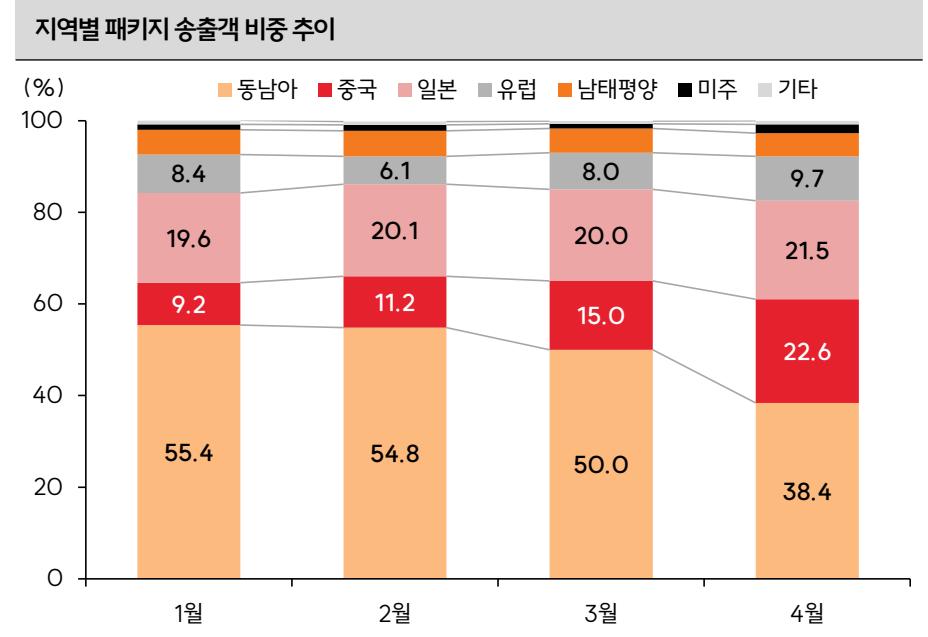
자료: 하나투어, SK증권

모두투어 - 송출객 줄었지만 방향성은 유지

- 패키지 여행 상품 수요 감소 영향 + 여행사 체급차이 분명하게 나타났던 1분기
- 4월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, 항공 사고 여파, 연휴 부재 등의 영향 나타날 것이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
- 5월 및 6월, 그리고 하반기 연휴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, 출국자 추이와 발맞춰 중국 및 일본 향하는 송출객 비중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
- 주요 여행사 체급차이에 따른 낙수효과 영향 시차 분명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, 상저하고 실적 기대감 유효한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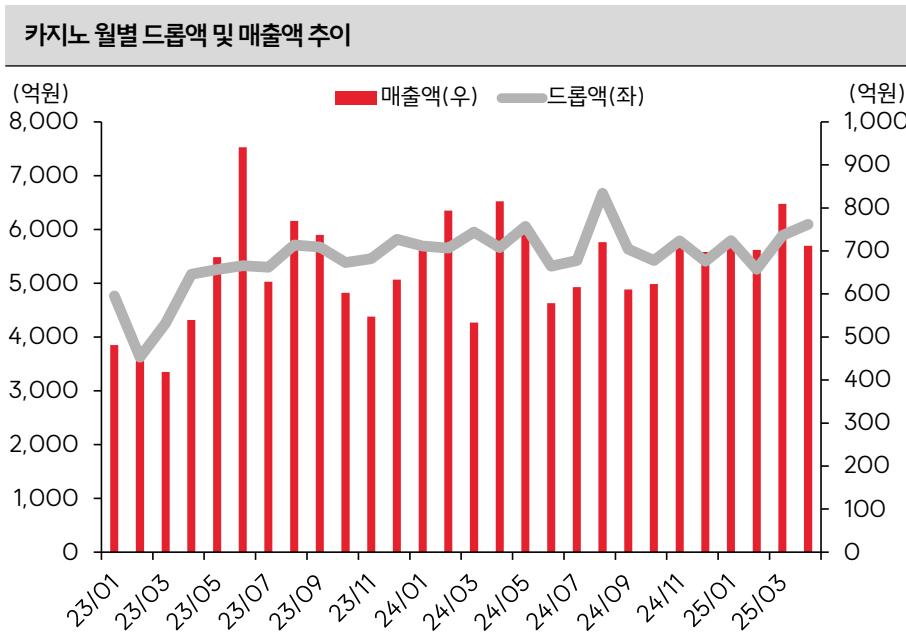
자료: 모두투어, SK증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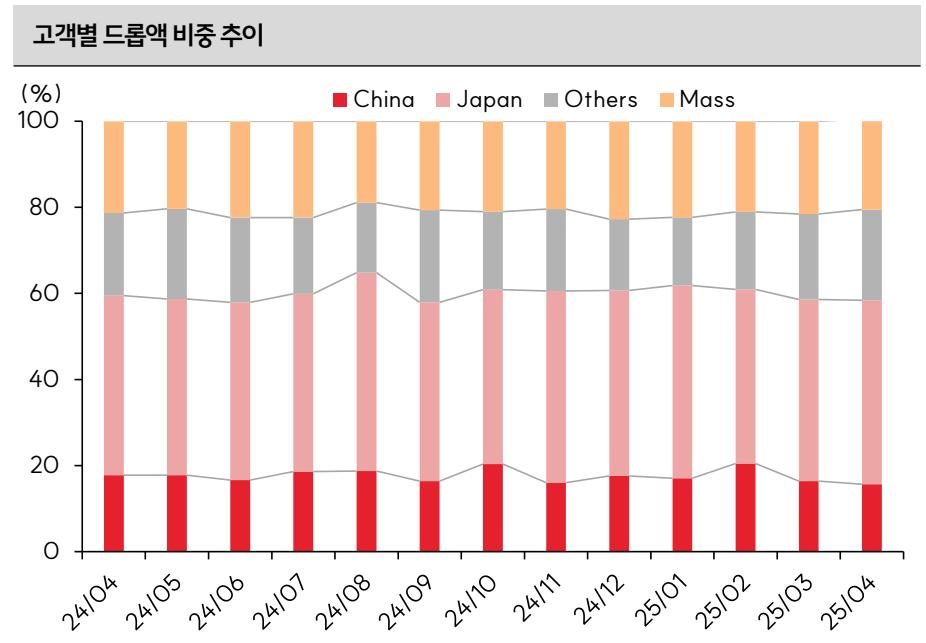
자료: 모두투어, SK증권

파라다이스 - 4월 홀드율 줄었어도 방문객 늘고 드롭액도 증가

- 4월 카지노 방문객 및 드롭액 증가 추세 지속
-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관광객, 올해 들어 월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방문객 및 드롭액도 증가하는 상황
- 월별 홀드율 차이에 의해 카지노 매출액 변동 나타나지만, 기초체력인 방문객과 드롭액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
- 중국 및 일본, 5월 초 노동절 기점 긴 연휴 보낸 상황, 우리나라 입국자수 증가 한만큼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 더욱 높아지는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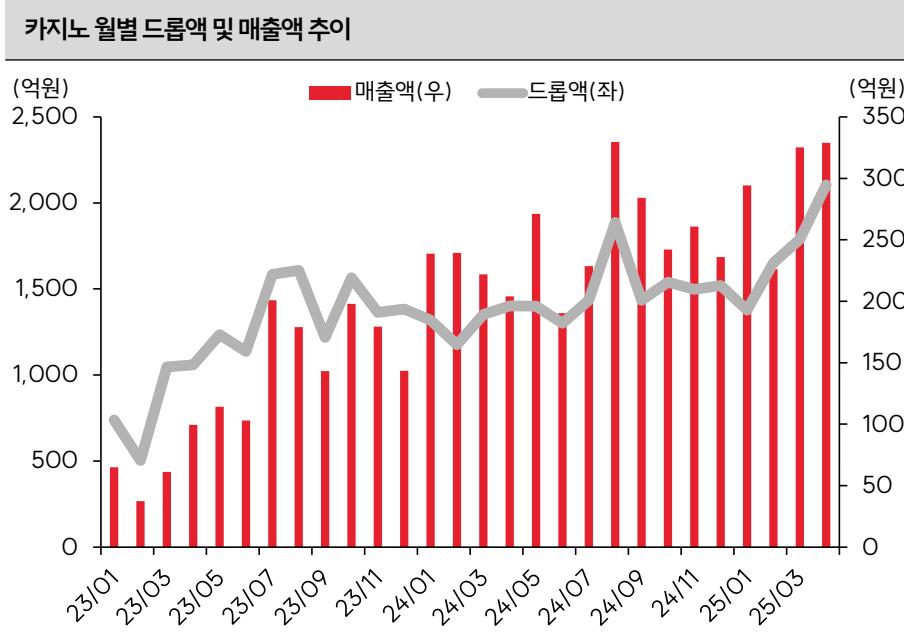
자료: 파라다이스, SK증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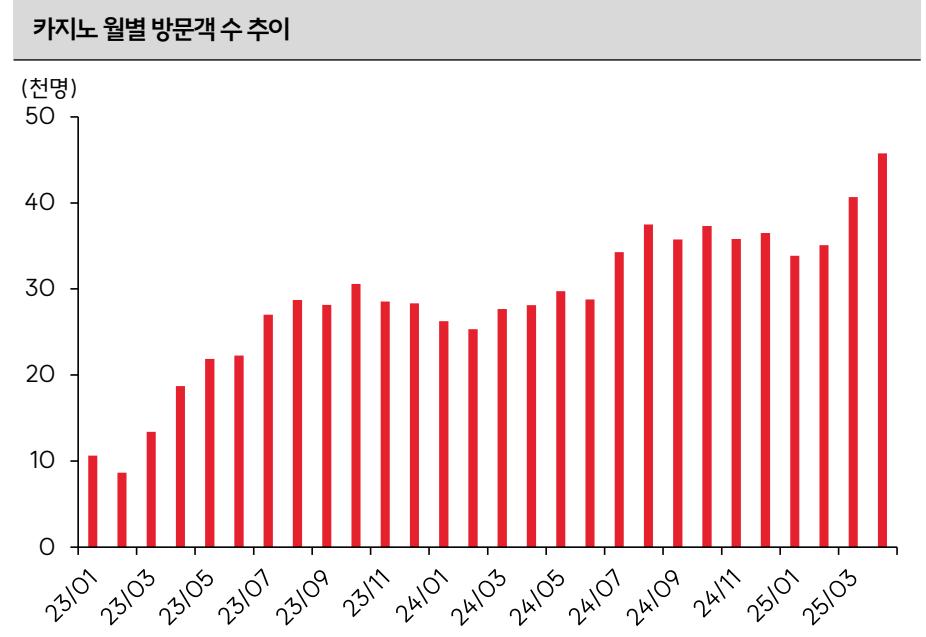
자료: 파라다이스, SK증권

롯데관광개발 - 제주도 찾는 외국인 증가 속도 빠르다

- 내국인 입도객도 빠르게 반등했지만, 외국인 입도객 증가 속도도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
- 5월 코로나19 이후 월 외국인 입도객 최고치 경신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제주 드림타워 찾는 방문객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
- 방문객 증가하고, 드롭액도 따라 증가하면서 홀드율 변화 반영하더라도 월 300억원 이상 카지노 매출액 안착하는 모습
- 외국인 입도객 증가에 따른 호텔 수요, 레저 수요,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여행객 관련 여행까지 3박자 선순환 진입 예상



자료: 롯데관광개발, SK증권



자료: 롯데관광개발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나승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 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> 매수/ -15%~15% > 중립/ -15%미만 > 매도

SK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25년 5월 12일 기준)

매수	97.50%	중립	2.50%	매도	0.00%
----	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